

기업실적 지속하락 '박스권' 장세... IT·소비재 유망

리서치센터장 5월 증시전망

이달 코스피지수 최대 2300 전망
'기업이익 하향조정' 투자 부정적
반도체 회복엔 코스피 추가 상승

이달 국내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추
정치기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부진한
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.

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기업이익이
증가세로 전환하고 중국과 미국의 제조
업지표가 개선되는 등 증시에 우호적인
전망도 나온다.

지난달 30일 코스피는 반등 하루만에
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
12.84포인트(0.58%) 내린 2,203.59로
장을 마쳤다.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
4.14포인트(0.55%) 오른 754.74로 마감
했다.

◆5월 코스피 최고 2300까지 전망

메트로신문이 국내 주요 리서치센터
장을 대상으로 5월 증시 전망을 조사한
결과 이달 코스피지수는 2120에서 최고
2300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. 또 증
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유망업종으로 I
T, 소비재 종목을 주로 제시했다.

우선 이달 한국 증시는 달러화 변화
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

〈5월 주요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증시전망〉



증권사	미래에셋대우 구용욱 리서치센터장	하나금융투자 조용준 리서치센터장	대신증권 정연우 리서치센터장	키움증권 박희정 리서치센터장	삼성증권 오현석 리서치센터장
코스피전망	(전망안함)	2120~2250	2080~2220	2100~2300	2100~2300
투자전략	하반기 증시 완화 기대	영업이익률, 자산회전율 높고 레버리지 비율 낮은 종목 주목	포트폴리오 베타 낮추는 전략 필요	중국, 미국 제조업지표 개 선 기대	반도체 실적 회복 여부가 증시 상승을 좌우
유망업종	IT 전반 선호	휴대폰/전기전자, 자동차, 조선, 의료	통신, 유틸리티, 소비재	경기관련소비재, 건강관 리, 필수소비재, 금융	에너지, 산업재, 내구소비 재/의류, 생활용품, 소프트 웨어

된다.

또 애널리스트들의 기업이익을 지속
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어 투자심리에
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.

박희정 키움증권 센터장은 "중국 경
제지표 개선, 미국 연준의 경기에 대한
자신감 표명, OECD 경기선행지수 개
선 등이 코스피 상승 요인으로 꼽히는
반면 EU 의회선거, 트럼프 행정부의 자
동차 및 부품 관세 부과, 달러/원 환율
변동성 확대 등은 하락 요인"이라고 설
명했다.

하반기부터 코스피 지수 레벨이 높아

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.

구용욱 미래에셋대우 센터장은 "올
해 코스피 순이익은 전년보다 13.8% 떨
어질 것으로 예상한다"면서도 "3분기부
터 실적 전망치 둔화 폭이 개선되고 하
반기부터는 기업 실적 개선이 기대된
다"고 내다봤다.

또 삼성증권 오현석 센터장은 반도체
의 실적 회복 여부가 코스피 추가 상승
강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.

◆IT·통신·소비재 종목 추천

전문가들은 정보기술(IT)과 통신, 특
히 소비재 종목을 이달 추천 종목으로

꼽았다. 무엇보다 5G 수혜에 대한 기대
가 돋보였다.

구 센터장은 "메모리반도체의 경
우 하반기에 가격 반등이 기대 가능
하고 5G 보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클
라우드, AI,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가
업그레이드되면서 IT부품에 대한 수
요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"고 설명
했다.

또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센터장은
"최근 애플이 퀄컴엔 아니라 삼성전자
에도 5G 모뎀칩 구매 의사를 밝힌 바 있
다"며 "5G 단말기 단에서의 변화와 관

련 수혜 업체들이 주목할 만 하다"고 말
했다.

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소비재 종목
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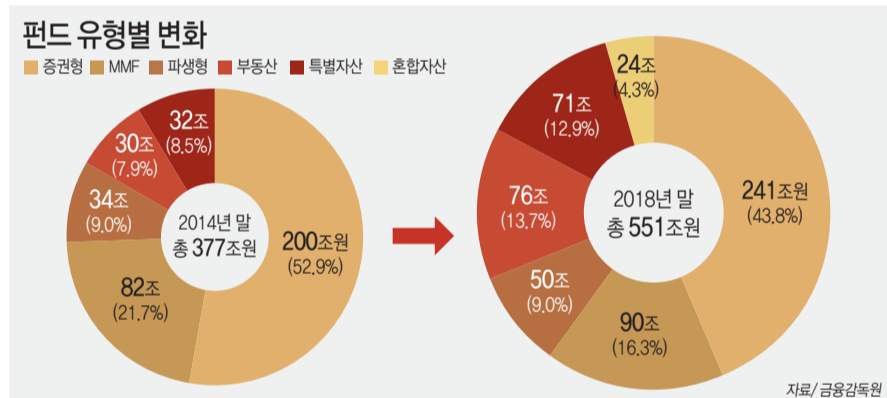
대신증권 정연우 센터장은 "주식비
중을 줄여가는 가운데 업종 선택은 안
정성에 포커스를 맞출 것"을 권고하며
실적 컨센서스 안정을 꾀한 업종으로
필수소비재와 미디어/교육, 화장품/의
류 등을 추천했다.

또 박 센터장은 "KOSPI200 기업에
대한 애널리스트 실적 추정치가 IT와
에너지, 소재업종을 중심으로 하향하고
있다"며 "업종별로는 경기관련소비재,
건강관리, 필수소비재, 금융 등의 전망
이 개선됐다"고 설명했다.

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살펴보면
'매출 감소'가 눈에 띈다. 하지만 매출
자체보다 기업의 높은 수익성에 주목해
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.

조용준 하나금융투자 센터장은 "매
출 부진은 수출 가격보다 물량 감소의
영향이 더 크다"며 "저성장 시기를 감
안해 손익분기점 물량이 낮아지는 종목
중 수익성(영업이익률)이나 효율성(자
산회전율)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레버리
지비율이 낮은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
있다"고 분석했다.

/김유진 기자 ujin6326@metroseoul.co.kr



펀드시장 '사모'가 이끈다

금감원, 3년간 펀드시장 174조 ↑
사모 160조, 공모 14조 증가 그쳐

국내 자산운용시장이 최근 3년새 사
모펀드와 대체투자 중심으로 성장한 것
으로 나타났다.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
제도적 변화와 전통 자산의 수익률 정
체와 맞물린 결과다.

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
자산운용시장 전체 수탁고는 총 2010조
원이다. 펀드 551조원, 일임 586조원,
신탁 873조원으로 지난 2014년 말 대비
각 46.2%, 49.5%, 59.9% 늘었다.

펀드시장은 사모펀드가 성장을 주도
했다. 사모펀드 규제는 지난 2015년 10
월 완화됐다.

2014년 말 대비 펀드시장 증가규모
174조원 중 92%인 160조원이 사모펀드
였다. 공모펀드는 14조원 증가하는데
그쳤다. 사모펀드와 공모펀드 비중은
2014년 말 4.6대 5.4에서 작년 말 6대 4
로 역전됐다.

운용자산별로는 증권형, 머니마켓펀
드(MMF) 등 전통적 유형은 감소했다.
부동산, 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와 혼합

자산은 급증했다.

증권형 펀드 수탁고는 241조원으로
2014년 말 대비 20.7% 늘었다. 그러나
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.9%
에서 43.8% 낮아졌다.

MMF 역시 수탁고는 90조원으로
9.3% 증가했지만 비중은 21.7%에서
16.3%로 하락했다.

부동산 펀드의 수탁고 76조원으로
2014년 말 대비 2배가 넘게 늘었고, 비
중도 7.9%에서 13.7%로 높아졌다.

특별자산 펀드도 수탁고도 전년 대
비 122.2% 늘어난 71조원이며, 비중도
8.5%에서 12.9%로 커졌다.

지난해 말 기준 해외투자 펀드는 149
조5000억원으로 2014년 말 대비
138.4% 증가했다. 사모가 74%를 차지
했다.

유형별로는 2014년 말은 증권형이
60%로 비중이 가장 컸지만 2018년 말
증권형은 38%로 줄었다. 대신 대체투
자 비중이 25%에서 45%로 높아졌다.

지난해 말 기준 전체 신탁 수탁고는
873조원으로 2014년 말 대비 59.9% 늘
었다.

/안상미 기자 smahn1@

이베스트증권, 유상증자 성공

경쟁률 62대1 김원규의 '신의 한 수' 3년내 '자기자본 1兆' 목표위해 순항



김원규 이베스트투자증권 사장

관리종목 지정 이달중 해제될 듯
높은 배당성향, 투자자들에게 매력

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
베스트투자증권의 주가가 연일 오름세
다. 자기자본이 4800억원 수준으로 증
가함에 따라 향후 사업에도 속도가 붙
을 전망이다.

1일 한국거래소(KRX)에 따르면 이
베스트투자증권의 주가가 최근 10% 가
까이 급등했다. 일반공모 유상증자를
통해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해소했기
때문이다.

관리종목 지정은 이달 중순 해제될
것으로 보인다. 앞서 한국거래소는 이
베스트투자증권이 사업보고서상 소액
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
20%에 미달해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
있다고 공시했다. 지난해 말 기준 이베
스트투자증권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
인의 보유 지분은 84.88%에 달했다.

이에 따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
22일 총 1500만주를 일반공모유상증자
를 결정했다. 소액주주 비율을 10%까
지 끌어올리기 위함이다. 총 1500만주
중 10%인 150만주는 우리사주로 배정
했고, 신탁·벤처기업투자신탁 343만

4000주, 1006만6000주는 기관 및 개인
투자자의 몫으로 배정했다.

결과는 "성공적"이었다는 평가다. 이
베스트투자증권의 내부 관계자에 따르
면 "(자사주는) 없어서 못할 정도"라고
말했다. 청약 경쟁률은 62.13대 1을 기
록했다.

이베스트투자증권의 성공적인 유상
증자는 큰 활인율을 적용한 결과다.

통상 유상증자는 일반공모 청약일 전
과거 3~5거래일의 평균 주가에 10~
20%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베스트투
자증권은 25% 할인율을 적용해 신주
발행가액을 5190원(액면가 5000원)으
로 확정했다.

유상증자 결정 전 주가(8320원)보다
무려 37.6% 할인된 가격으로 그만큼 청
약을 성공시켰겠다는 회사 측 의지가
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.

기관투자자들에게는 높은 배당성
향이 매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
온다.

이베스트투자증권의 최근 3년 평균
배당성향은 56.93%로 매년 순이익의
절반 이상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고 있
다. 지난해 배당금은 주당 485원으로 배
당수익률은 7.4% 수준이다.

또 다른 성공요인은 성장에 대한 기

대감이다. 지난 3월 김원규 대표이사가
새로 취임하면서 회사 내부에 활력이
돌고 있다는 평가다.

김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"임기 내 자
기자본 1조원 달성"을 약속했다. 4000
억원 수준인 자기자본을 3년 내 1조원
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다. 아울러 자본
확대를 발판으로 장외파생, 신탁, 헤지
펀드 등 신규 라이선스 획득을 통한 사
업 확장 의지도 밝혔다.

이번 유상증자로 이베스트투자증권
의 자기자본은 4000억원대에서 4816억
원으로 증가했다. 또 지난해 수준의 당
기순이익(340억원)을 거두게 되면 연
내 자기자본 5000억원 달성도 어렵지
않을 것으로 보인다.

김 대표는 늘어난 자기자본을 활용해
부동산금융·구조화금융 등 IB 부문의
영업력을 강화하고 상장 전 투자유치(P
re-IPO)·매지진 투자를 비롯한 자기자
본투자(PI)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.

연 초 조직개편을 통해 IB사업 본부
를 3개에서 4개로 늘린데 이어 류병희
전 케이프투자증권 IB본부장을 IB사업
부 대표(부사장)로 영입했다. 투자금융
본부장에는 김현호 전 삼성증권 기업금
융팀장(이사)을 선임했다.

/손영지 기자 sonumji301@